

사·부·대·중

자신이 빛이 되는 삶

최근에 만난 한 불자의 기도 내용은 무척 신선한 것이었다. 고행은 상대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고행과 같은 수행은 새벽 3시에 시작된다. 인근 절에 가서 108배를 마치고 6시 30분에 출근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700내지 1000배를 더한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그분의 귀는 얼어서 헐어 있었고 눈은 잠이 부족하여 핏발이 서 있었다.



안옥선 전법대 강사·철학

일침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학문'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철학이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의해 성장하고 그것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철학이라는 학문은 일차적으로는 탐구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빛을 의미하고, 이차적으로는 해답에 따라 사는 나의 삶 내지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의 빛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더 의미 있는 빛은 나의 삶 혹은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의 빛이다.

즉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혹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이러한 삶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라는 것이 불교의 요청이다. 그리하여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 '수처자주(隨處作主)'나 '자등명(自燈明)'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충격은 그분의 수행과 결부된 기도 내용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난 두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끔 해달라는 기도였다. '무엇이 되어 무엇(what)을 하느냐'보다도 '어떻게(how) 사느냐'의 문제가 삶의 화두가 되어야 함을 내 자신에게도 늘 되새기지만 그분의 기도는 신선하기 그지없었다.

나에게 있어서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이며, 내가 옳다고 믿어 온 관념과 삶의 양식에 대한 검토의 도구이다. 그런데 비수와 같은

이차적으로는 해답에 따라 사는 나의 삶 내지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의 빛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더 의미 있는 빛은 나의 삶 혹은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의 빛이다. 즉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혹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이러한 삶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라는 것이 불교의 요청이다. 그리하여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 '수처자주(隨處作主)'나 '자등명(自燈明)'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망 명예훼손법' 제정 시급하다

사이버 웹

이대론 안된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현실 공간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곳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 공간. 이 공간이 비판적 여론이나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고 전자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점은 대다수 네티즌이 인정한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보다 맹목적 비난에 주력하는 듯한 '안티(Anti)' 사이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교계를 들쭉신 안티불교(geocities.com/onias77)나 안티선(whatiszen.com/next-board) 등의 사이트가 이 같은 예다.

안티불교의 경우 '조계종 사건 기사모음', '공교를 막지 못한 팔만대장경', '국립공원에서 돈받는 불교', '우담바라 코미디 대소동', '한반도를 동간년 중국불교' 등의 코너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안티선 역시 선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마진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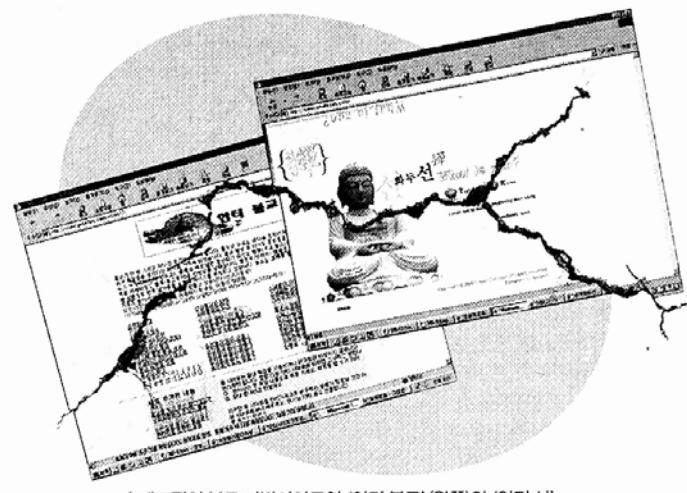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계는 안티불교나 안티선과 같이 불교를 왜곡시키는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교계의 주장이 행정이나 사법 조치와 같은 현실적인 힘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허술한 법망

이들 사이트는 지금도 교계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눈뜨고 코가 잘려 나가는 것'을 감언자실한 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이들 사이트를 제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산하 민간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같은 곳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위원회나 수사대는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 개인과 단체의 정보를 심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수사대는 행정 조치 수준의 위원회 대응보다 더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사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 음란물 판매, 언어 폭력, 매춘 등의 범죄에만



대법적인 불교비방사이트인 '안티불교' (왼쪽)와 '안티선'.

특정단체 인물·단체만 법보호

'불교' '선' 등 추상적 의미 비방심각

영국 '하이테크 수사대' 등과 공조 외국 통신망 빌린 웹사이트 제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형(서울대 법학) 교수는 "사이버 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특정한 단체나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불교'만을 지칭할 때는, 수사대의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법의 보호 대상인 법인격체로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잘못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삭제 명령권 관련 조항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내의 행정 및 사법권은 외국의 상용 통신망에 있는 정보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안티불교'나 '안티선'의 경우 미국의 상용통신망에 개설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교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셈이다.

모니터링, 웹물사레 추적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계는 '관련법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상황으로는 만만하지 않다. 아직까지도 '인터넷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네티즌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평히 맞서고 있는데, 이 갈등이 끝나야만 관련법을 보완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정보통신부가 그 범위를 성폭력과 도박, 사기 등의 범죄에 한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결국 사이버 웹은 현실 세계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교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교계의 현실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 전문가들 역시 "이들 사이트를 규제하는 판례가 없어, 현재로서 법만을 믿을 수 없다"며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사례를 모아 축적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이를 신고, 제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선례(先例)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이테크 수사대'를 편성하는 추세인 만큼, 이들과 공조한다면 외국 통신망을 빌려 국내에 제공되는 사이트의 웹물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관련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목탁소리

조계사의 비애

한명우 (취재1부 기자)

"조계종은 별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것 같지 않네요. 조계사도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요." 지난달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정치적 발언 이후 조계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조계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대스님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150여건이나 올랐다. 홈페이지는 그래도 멀하다. 19일부터 5일간 조계사 총무원들은 외부로부터 걸려온 항의전화를 받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시달림을 받게 된 총무원들의 입에서 푸념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조계사가 본의 아니 '고초'를 겪은 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94, 98, 99년 종단사태 때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스님들간의 폭력사태를 지켜본 불자와 시민들은 사태가 일어난 장소가 조계사라는 이유만으로 조계사를 질타하고 매도했다. 조계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조계사의 한 총무원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총무원과 조계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죄가 있다면 총무원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씩씩해 있었다.

지난 1일 조계사가 개최한 '실적자 돕기 기금마련 바자회'에는 영부인이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과 자민련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희호 여사의 참석은 평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자주 참석해 온 이희호 여사의 성향을 고려한 조계사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조계사는 이희호 여사를 초청해놓고도 상당히 노심초사했다. 정대스님의 친연성(親緣性) 발언 이후 파가운는 총을 받아오던 차에, 이번 행사로 자칫 '집권당 사찰'이라는 '오해' 안은 오해'를 받거나 않을까 해서다. 불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조계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명실상부하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신행·포교의 1번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사가 겪는 고통은 곧 한국불교의 고통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조계사의 고통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인터넷 정보통신윤리위 권현영 연구팀장

"맹목적 비난 일삼는 사이트 가상공간서 추방 마땅"

"인터넷이 없던 시대와는 달리 '힘'은 '개인'이라도 통치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현영 조사연구팀장은 가상 공간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안티(Anti) 사이트의 홍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씨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최근 안티 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티 사이트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기 때문



이다. 여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무작정 비방하는 글로 가득찬 안티 사이트도 있고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흠집을 내기 위한 안티 사이트도 있다. 안티 연예인 사이트 게시판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경쟁상대를 비방하는 글이 수도무적이다.

권 씨는 "안티 사이트가 비판적 여론이나 소수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고 전자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건전한 비판보다 맹목적 비난에 주력하는 듯한 안티 사이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집단이 악용할 수 있는 안티 사이트의 경우엔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지자가 부족해 폐쇄되는 다른 안티 사이트들과는 달리 생명력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권 씨는 "위원회 차원에서 '안티 사이트'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고, 안티 전문 검색 사이트 '안티21세기(anti21c.com)'가 안티 사이트에 관한 네티즌 반응을 듣는 투표에서도 응답자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나네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움직이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축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더라니까"

적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과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낸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약죽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후 역죽에 20여일간 담그고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숙퍼레이종'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종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바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혈압, 지체,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 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 (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현머리를 거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 복수인인 취급이 부담이 없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경 대 전 입장

해인총림율원 제24기 학인모집 공고

해인총림율원은 불법의 생명이고 출가자의 근본인 계율을 연찬하며 수행하는 2년 과정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청정 승단을 율곧게 지켜나갈 발심과 원력을 가진 비구 스님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교과목
 - 첫해는 「사분율장」을 중심으로 광율을 비교하고,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교학체계를 정리하며, 「불교문화사」로 율장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 둘째 해에는 「범망경」을 중심으로 대승율을 익히고, 「선원청규」를 중심으로 청규를 정리하며, 동언거를 선원에서 정진하고 졸업한다.
- 용시자격
 - 종단의 기본교육기관(강원·기초선원·중앙승가대·동국대 불교학부)을 이수한 비구 및 2545(2001)년 4월 구축제 수계대상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2545(2001)년 2월 20일까지.
- 전형일지
 - 2545(2001)년 2월 21일(음력 1월 29일) 오후 1시 해인총림율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 2545(2001)년 2월 23일(음력 2월 1일)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2. 승적사본 1통
 3. 졸업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각1통
 6. 건강진단서 1통
 7.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각1통
 8. 사진(4X5) 5매
 9. 본인도장
- 문의전회
 - 055-931-1015 (율원장), 055-931-1004 (율원), 055-931-1001 (종무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리리 산10번지.

법보종찰 해인사 해인총림율원 주지 수봉 세민 율원장 일장 혜능